

# 공동체로 사는 이유

그리고 토마스 머튼의 두 논평

---

**Why we live in community**

**with two interpretive talks by Thomas Merton**

---

에버하르트 아놀드 지음 / 토마스 머튼 해설 / 편집부 옮김



이 전자책을 여러분의 벗들과 나누시렵니까?  
원하시는 대로 벗님들에게 보내십시오.  
다만 원문을 부분 변경하거나 훼손하지는 마십시오.  
만약 본 책을 방대한 발행을 위해 대량 복사하거나 뉴스나  
잡지류에 재출판하기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  
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책을 재출판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다음 크레딧 라인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Copyright 2007 by Plough Publishing House. Used  
with permission”

이 전자책은 플라우 출판사의 출판물입니다.

Plough Publishing House,  
Farmington, PA 15437 USA ([www.plough.com](http://www.plough.com))

Robertsbridge, East Sussex, TN32 5DR, UK  
([www.ploughbooks.co.uk](http://www.ploughbooks.co.uk))

Copyright © 2007 by Plough Publishing House  
Farmington, PA 15437 USA  
All Rights Reserved

# 공동체로 사는 이유

그리고 토마스머튼의 두 논평

에버하르트 아놀드 지음 / 윌터출판사 편집부 옮김

여러분이 우리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흉내내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없어질 흰 거품을 뒤로 남기며 대양을 가로지르는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를 힘썼습니다. 매세대마다 새롭게 성령님을 따르는 데 힘써야 합니다.

/제1세대 웨이커교도들 ,17세기 말 영국 요오크의 발비에서

# 차례

들어가는 말

에버하르트 아놀드 : 공동체로 사는 이유

왜 공동체 입니까?

믿음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공동체는 사회 정치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공동체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교회를 통해 본 공동체

공동체 생활은 곧 성령님 안의 생활을 뜻합니다

공동체 상징성

공동체는 오실 하나님 나라의 전조입니다

공동체는 사랑과 일치로의 부르심입니다

공동체는 희생을 뜻합니다

공동체 — 믿음의 모험

토마스 머튼 : 두 논평

하나님의 사랑 위에 공동체 건설하기

공동체와 정치와 묵상

# 들어가는 말

바질 페닝톤

공동체에 관한 에버하르트 아놀드의 글에는 명료함과 단호함이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라는 견고한 화강암에 선명하게 조각해 놓은 듯합니다. 아놀드는 이 세상에서—심지어는 교회에서도—공동체적인 삶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실패와 좌절에 대해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 삶의 아물지 않은 고통과 상처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놀드는 교회가 가난한 자들 편에 서야 한다고 서슴없이 주장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거룩한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아놀드에게 있어서 공동체란 하나님과 그분이 만드신 온 창조물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본성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예” 라고 말하는 실존적인 응답입니다. 예정은—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우리가 그것을 위해 애쓰고 하나님과 함께 협력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말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 사이의 격차가 더욱 더 커지기만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금 초대 교회 공동체로 눈을 돌려 강하게 도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누가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언하면서 가까이에 굶는 사람이 사는 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집에 먹을 것을 잔뜩 쌓아 놓은 채 자기만 배 불리 먹고 편히 잠 잘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많은 가정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안간힘을 쓰며 일자리를 찾는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해서 자기 부만 축적한다면 이 또한 세상 사람들을 분개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놀드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만일 교회 공동체가 능력있는 성사 생활을 회복하고 혁신시킨다면 이처럼 잠자는 양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일깨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충만한 삶은 철저한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아놀드의 반복되는 메시지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처럼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부활절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쁨으로 충만한 희생 제사입니다. 아놀드는 한가지 중요한 역설적인 진리를 피력하는데, 이것은 생명력으로 약동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

해 필수적이지만, 체득하기도 매우 힘든 진리입니다. 그 역설이란 모든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전체 공동체에 복종하기로 결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개개인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선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밀 배후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이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많은 세상적인 시도들은 결국 처절한 배반감과 깊은 상처만 얻은 채 휘청거리다 끝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십니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향한 투쟁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진 공동체이며, 한 인류라는 가족 속에 들어 있는 누룩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동일한 열망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준비가 될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 오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을 불러 모으는 아놀드의 외침 속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로의 부름은 어거스틴, 베네딕트, 버나드, 프란시스, 이그나시우스, 돈 보스코의 외침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구라도 이들 영

적 지도자들과 이들이 세운 공동체가 교회의 영성을 얼마나 풍성하게 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들의 유산이 보다 더 오래 간직되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활발한 부흥기를 맞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들은 성령님이 생명력을 주시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우리를 어디로 부르는지에 대한 아놀드의 예리한 통찰에서 풍성한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동일하게 토마스 머튼이 알라스카에 있는 보혈 수도원서 수녀님들과 자신의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머튼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그는 분명히 더할 나위없이 현세적인(down-to-earth) 수도사이며 비범한 사람입니다. 머튼은 아놀드의 사상의 핵심을 꼭 짚어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머튼은 아놀드와 간디, 마틴 루터 킹도 그랬듯이 우리를 성령님의 원대하신 계획, 곧 사랑의 나라로—단지 이상에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이들이 그것을 위해 살고 죽었던 실제적인 사랑으로—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아놀드에 대한 머튼의 두 논평에 담긴 머튼의 사상은 그 폭이 넓습니다. 머튼은 예리하면서도 명료하게 아놀드를 역사적 상황 속에서 자리매김을 한 다음, 아놀드의 대가다운 글을 폭넓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머튼은 아놀드가 너무 자기 입장을 확

대해서 주장한다고 느껴지는 몇몇 부분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비평을 하지만, 곧바로 아놀드가 그런 말을 한 원래 의도와 최종적인 결론이 옳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비평을 완화시킵니다. 아놀드와 마찬가지로 머튼 역시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우리는 머튼이 바울의 기독교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자신의 해설 속에 알기 쉽게 엮어 놓은 데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머튼은 공동체가 죽음을 이긴 사랑의 승리라는 사실을 기탄없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평범한 사람들이—그리스도의 승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가운데 이루어낸 것입니다.

머튼과 아놀드는 이구동성으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공동체라는 승리의 삶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인간의 능력과 행위로 이루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개개인,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도 잊지 않고 강조합니다. 이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를 대적하는 우리 내부의 악과 맞서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악은 우리를 좌절시켜서 공동체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을 단념케 한다든지,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하여 천박하고 거짓

된 길로 유인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는 결코 참된 공동체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하고 약하며 어리석은 죄인들을 불러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머튼이 말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위에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오직 옳은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금세기의 선두적인 가톨릭 저술가가 자신의 사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사실에 대해 아놀드도 분명히 기뻐할 것입니다. 머튼의 경우에는 아놀드가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 참으로 귀중하고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모든 가치와 이상들이 머튼의 경우에는 오랜 전통의 독신수도 생활에 통합되어 삶으로 흘러 넘쳐 나고 있습니다. 노동과 단순한 생활에 대한 아놀드의 예찬이 청빈의 정신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수도회 수사인 머튼의 삶과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지!

과거에는 결코 건널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단절과 장벽을 건너뛴 토마스 머튼과 에버하르트 아놀드 같은 영적 거장들을 보면서, 우리는 힘과 격

려를 얻습니다. 또한,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꿈을 감히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 역사 상, “나에게는 꿈이 있다.” 고 용감하게 선포했던 예언자적인 인물들을 기억하기에 우리 역시 꿈을 가져봅니다. 이 꿈은 반드시 실현되는 꿈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가야 할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아놀드의 글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연합’ 이라는 뜻을 향해 가는 우리의 여행에 힘을 주는 영양가 풍부한 양식이 되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강력한 말을 통해 깊숙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질 페닝톤(Basil Pennington) 1995년 4월*

# 에버하르트 아놀드의 공동체로 사는 이유

## 왜 공동체입니까?

**공**동체 삶은 우리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을 결정짓는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우리의 선한 의도나 노력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를 강권했던 것은 어떤 확신이었습니다. 이 확신은 만물의 근원자에게서 나오는 것이었고, 우리는 그 근원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공동체적인 질서 속에 존재하며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 믿음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공동체 삶은 하나님 위에 세워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한 갈등과 위기들을 지나 최후의 승리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위험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곧바로 생존의 투쟁과 힘겨운 삶의 현실, 그리고 인간 본성 때문에 생기는 온갖 갈등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록 끝없는 투쟁—생명과 죽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끼어 있는 인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생명과 사랑의 힘, 그리고 진리의 승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나 체계적인 사상이나 빈틈없는 논리도 아니며, 어떤 종교 의식이나 조직체도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이 힘겨운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힘입니

다. 또, 이 신앙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사람간에 신뢰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조차도 다시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며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깨닫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는 것도 이 신앙입니다. 또, 신앙때문에 우리는 어디에나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만질 수 없었던 것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더는 사회적인 관습이나 약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맘몬이 지배하는 이 사회는 음탕하고 살인적인 본성을 가면 뒤에 숨기지만 우리는 그 가면 뒤에 감춰진 거짓을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반대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원래 사악하고 변덕스럽기에(사실이 그렇지만) 결코 소망이 없다는 거짓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현재 본성만 가지고 도저히 공동체를 할 수 없습니다. 변덕, 소유욕,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편하고 자 하는 욕망, 야망, 조급한 성미, 지배욕구 등, 이 모두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이 있기에 이런 세력들이 결정적이라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이기는 그분의 사랑과 비교해 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런 세력들보다도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분리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실현하고, 공동체 삶을 실제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능력자에 대한 신앙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모든 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의 선함(사실 인간에게는 선함이 있습니다)과 법의 힘만을 의지해 보려고 애써 보지만, 악의 실재를 당면했을 때에는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단 한 가지 힘은 선하신 분의 궁극적 신비를 믿는 믿음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뿐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삶의 모험 속에서만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생명을 주시며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사회 정치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우** 리 공동체처럼 국제 평화와 사유 재산 철폐, 완전한 재산 공유를 표방하는 정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들 단체와 행보를 같이 하며 이들 방식으로 투쟁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들 단체와 마찬가지로 빈곤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또 먹을 것과 집이 없는 사람들, 극심한 착취때문에 정신적 장애를 겪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상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가지지 못한 ‘무산자들’ 과 기본적인 생활권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사람들, 버림받고 압제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취당 한 삶에 대한 보복으로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일종의 계급 투쟁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자국의 방위를 위한 어떤 형태의 전쟁도 반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억압받는 자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 취하는 전쟁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일치와 평화와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 편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혁명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이상주의 사회 운동 또는 개혁 운동 등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거둬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가지만이 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불러 일으키고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가지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가능한 참된 행동의 모범을 말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타락한 세상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는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로, 바로 사랑의 사귄 안에서 행하는 건설적인 행함입니다. 우리는 감상적이기만 한 사랑, 행함이 없는 사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실제적인 일에 대한 열심이라도 그것이 성령님에게서 비롯하는 사귄, 곧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의 진심어린 사귄 가운데 날마다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행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담김 행함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있는 사랑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에게서 비롯되는 사랑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고집과 개인적

이고 단절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함께 손을 잡고 일하기로 다짐한다면, 이들의 연합은 최종적으로 도래할 모든 인류의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사랑과 곧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아낌없이 표현되는 형제 사랑의 정신처럼,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려는 의지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열이 담긴 행위, 행위로 들어나는 열 -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장차 도래할 평화의 질서의 근본 특성입니다. 공동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이런 행함과 일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손을 잡고 전체의 선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애쓸 때 이 노동은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을 때에만 주어집니다. 또한, 지극히 평범하고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경우라든, 모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도 역시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 성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한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막연한 갈망에 대해 우리가 믿음의 선명한 해답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 교회를 통해 본 공동체

**민**음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사랑의 삶은 유대 선지자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이어 수 세기 동안 역사에서 확연히 목격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사도들이 선포하고 제자들이 실천한 예수님의 메시지 전체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같은 형제요 자매로서 역사의 오랜 과정 동안 공동체로 살아온 모든 이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 2세기 예언자적 운동을 일으켰던 몬타누스파, 그 뒤 계속 나타나는 수도원 운동, 브레스치아의 아놀드가 주도한 정의와 사랑의 혁신적 운동, 왈도파 운동, 아씨시의 성 프란시스의 순례 공동체, 보헤미안과 모라비안 형제들 그리고 공동 생활 형제단, 베긴회와 베가드회, 16세기 재세례파, 초기 퀘이커교도들과 17, 18세기 라바디파, 초기 모라비안교도,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파들과 운동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

약의 선지자들과 초대 교회 시대부터 계속해서 공동체로 부르시는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생활은 곧 성령님 안의 삶을 뜻합니다.

## 초 대 교회의 공동체

우리는 예수님과 초대 교회를 전적으로 따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내적인 필요만큼이나 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데도 헌신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병든 몸을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고통받는 영혼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중에 지극히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장차 도래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을 뜻합니다. 이것은 마침내 이 땅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질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한계도 인정하지 않으며 어떤 장애물에도 막히지 않습니다. 마찬

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은 신학이나 도덕주의 혹은 국가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또 소유 문제 앞에서도 결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개인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공동 재정을 쓰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돈을 관리하는 꼼직한 책임이 한 제자에게 맡겨졌고, 그 제자는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과 같은 배금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심과 처형당하신 일조차도 결코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부어 주신 성령님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커다란 규모의 공동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인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들을 함께 살게 만든 것은 그들 가운데 불 타오르던 사랑이었습니다. 공동체 삶에 관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초대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은 그들이 삶을 하나의 통일체로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물질을

유무상통하였습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저항할 수 없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교회가 가지지 않은 것을 누구도 더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진 것은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이런 아낌없는 사랑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으며, 성도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공동체가 확대되던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비록 공동체 식구들이 적대와 증오의 대상이 되던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 오 늘날의 공동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결코 철이나 돌처럼 딱딱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식인이나 냉철한 사람들의 경직된 의식, 혹은 정부 조직이나 사회 구조의 고정된 틀과는 도저히 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하고 섬세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간 영혼의 모든 감성보다도 더 예민하시며, 인간의 심성이 가진 모든 능력—인간은 이 위에 영구적인 체계를 세워보려고 부질없는 노력을 하곤 합니다—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십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리 제압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힘이라도 그 어떤 것보다 성령님은 더 강하시며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존재의 모든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는 사랑, 권리를 따지지 않는 사랑, 소유욕이 없는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은 부활하신 분으로서, 그리고 내면의 음성이고 내적인 눈으로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공동체로 인도하십니다.

초대 교회의 빛은 섬광과도 같이 아주 짧게 인류의 길을 비추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증거는 공동체 사람들이 흩어지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역사상 계속해서 비슷한 형태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리고 동일한 성령님의 표현으로서 등장하였습니다. 증인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부모세대는 죽었지만, 새로운 자손이 다시금 성령으로 태어났고 지금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사라짐

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를 태동시킨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위적으로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노력들은 불쌍사납고 생명력없는 모방으로 끝날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 곧 성령님 앞에 마음을 모두 비우고 열린 마음으로 설 때 비로소 초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역사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생명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십니다. 또한 모든 이들에게도 기쁨이 되십니다. 모두들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과 하나되게 강권하시며, 서로를 위해 살고 일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곧 창조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삶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품으시는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인해 가능한 심오한 영성, 그리고 생명을 한층 더 민감하고 철저하게 경험하는 능력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성령님께 순복하는 것은 그야말로 견줄데 없는 강력한 체험입니다. 진실로, 성령님과 필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 자신 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중심 핵—공동체의 마음—을 백열하기까지 불 태우심으로써 우리의 에

너지를 활발히 일으키십니다. 이 중심 핵이 불타올라 완전히 하나님께 산 제사로 바쳐질 정도가 될 때, 그 불빛은 온 사방에 퍼집니다.

공동체 삶은 마치 화형으로 순교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힘, 모든 권리, 그리고 살면서 흔히 당연하게 요구하는 모든 주장들을 날마다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불이 가지는 상징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날개의 장작이 자신을 태워 그 불이 서로 합해질 때 그 작열하는 불꽃의 열기와 빛이 계속해서 세상에 전달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기쁨과 사랑의 성령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 언제나 함께 연합하도록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 공동체 상징성

**자**연의 한 양식으로서의 공동체  
자연 속에서 각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보여 주는 하나의 비유가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공기처럼, 우리를 휘감는 바람처럼, 우리는 바람 같은 성령님 안에 깊이 잠겨야 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물로 깨끗이 씻듯이, 침례의 깊은 상징 가운데 물에 잠김으로써 사망에 속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정결케 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 속에 '장사' 지내는 일은 단 한번 있는 일로서 과거 삶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안과 우리를 둘러싼 악에 대해 철저하게 원수가 됨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물 속에서 들어 올려지는 것 역시 단 한번 있는 일로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선명함과 생생한 이미지로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부활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가을과 겨울의 죽음 뒤에는 꽃이 피는 봄이 오고, 열매 맺는 여름이 옵니다. 씨뿌리는 시기 뒤에는 추수하는 때가 옵니다. 사실상 인간의

출생에서 그 임종까지 인간사의 모든 과정도 자연의 순환이라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이런 상징성은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기만 한다면 식사와 같은 일상사 역시 공동체의 신성한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깊은 차원에서는, 떡과 포도주라는 주의 만찬의 상징 속에서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재림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사실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생명의 궁극적인 하나됨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 - 그의 몸 - 를 증거합니다.

## 몸으로서의 공동체

영혼과 그 영혼이 담긴 몸 - 피조물과 그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 의 이중적인 상징성은 모든 인간 존재 속에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이라는 두 사람의 연합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충실함을 약속하는 결속으로서 결혼은 성령님과 인간과의 연합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모습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순결 - 자제된 성생활 - 은 창조된 생명에게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인체를 두고 볼 때, 그 몸으로서의 공동체가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은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끊임없이 교체되는 순환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공동체의 삶은 누군가 장렬한 희생을 무릅쓸 때에만 하나의 유기체로서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란 서로 돕고, 서로 바로잡아 주고, 함께 공유하며, 일하는 상호 훈련의 사귄이기 때문에, 참된 공동체는 자발적인 복종과 희생 가운데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체는 교회의 존립을 위해 싸우는 것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맥락 속에서, 정의란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권리를 만족시켜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성원 각자 속에 하나님께서 육화되어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그의 삶 속으로 임하도록 전적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모든 일에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지로 요구하고 다그쳐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꺼이 하는 자기 희생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희생할 때 즐거움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자발성과 일하는 즐거움,

형제 자매간의 기쁨, 전체를 위한 포기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쁨과 감격은 행동하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몸을 사랑합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흙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이 공동으로 일을 해서 개척되지 않은 천연 상태의 땅을 경작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 노동을 - 근육을 사용하고 손을 이용하는 일 -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장인의 기술을 소중히 여깁니다. 장인의 손을 이끄는 것은 그의 정신입니다. 정신과 손이 서로 협력하며 일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의 신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정신의 활동 역시 좋아합니다. 모든 풍요로운 창조적 예술을 좋아합니다. 또한,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인류의 운명과 역사 속에서 모든 지적 영적 상호관계에 대한 탐구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 창조의 영 - 은 자연을 만드셨으며 당신의 아들이요 딸인 우리에게 땅을 유업으로서, 그리고 과업으로 위임하셨습니다. 우리의 밭이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

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계를 일치로 부르시는 동일한 창조와 일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독려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노동과 문화의 공동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공동체는 오실 하나님 나라의 전조입니다

**몸** 이 가지는 상징성만큼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발대로서 공동체가 세상에 전하는 소식, 즉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그때에 기쁨과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개인의 살아있는 몸이 수백억 개의 독립된 세포로 구성되어 있듯이, 온 인류도 하나의 유기체가 될 것입니다. 이 유기체는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됨과 질서의 실재를 인정하는 것은 동시에 그 질서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자신의 고유의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히 알아갈수록, 공동체는 더욱 자신이 유나 상타(*una sancta*), 즉 우주적인 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공동체는 보다 큰 유기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몸을 섬기는 데서 비롯하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교회의 존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일치된 증거에 의해 지도되고 인도되어야 합니다.

자기 결단과 자기 순복

공동체의 비밀은 자기 결단의 자유에 있습니다. 또한, 전체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며, 동시에 선을 위해 애쓰겠다는 개인적인 결단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가 없이는 공동체 삶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인간의 의지력을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며 부화뇌동이나 방종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깊이 감화받고 참으로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는 성령님으로 인해 온 공동체 식구가 하나된 마음으로 내리는 자유로운 결정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진심으로 선을 향한 의지에 따라 일하는 과정에서, 자유는 전원 일치와 화합을 이루어 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된 남자와 여자의 의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치, 그리고 온 인류의 선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의지는 삶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이 불굴의 의지는 거짓과 음란의 파괴적인 세력, 그리고 자본주의와 무력의 노예화시키는 세력에 대항해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은 모든 곳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살인의 영, 모든 적개심, 조롱하고 시비를 거는 악의에 찬 혀, 그리고 사람들이 서

로에게 하는 온갖 나쁜 짓과 불의에 대항해 벌이는 싸움입니다. 또한, 이 싸움은 개인적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넓게는 사회적인 영역에서까지 증오와 사망의 실체, 그리고 공동체를 반대하는 모든 것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부르심은 곧 중단 없는 싸움으로의 부르심이며 휴전 없는 전쟁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억눌린 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며, 자기 자신과 주변 세상에 있는 모든 악에 대해 투쟁하기 위해, 이들에게는 스스로 갖출 수 있는 극도로 강인한 의지력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모든 힘들도 필요합니다.

공동체로 사는 데 있어서, 공동체 자체에 해악을 키치고 파괴하려는 모든 악에 대항한 싸움이 바깥 세상에 대항해 하는 싸움보다 더 치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보다 훨씬 격렬하고 치열해야 할 싸움이 각 개인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공동체 삶 속에서, 교회의 영은 각 개인 속에서 싸울 태세를 취하고, 새 사람 편에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옛사람과 싸웁니다. 이런 식으로 불 타오르는 사랑의 힘은 모든 나태함과 나약한 방종을 이겨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에 대항하는 생명의 투쟁은 영혼과 몸의 일치된 전열을 구축하여 죽음이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출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유 무상통하는 공동체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는 개인의 수입이나 재산이 크든 작든 간에 자신이 가진 것을 아무 조건없이 공동체 앞에 헌납하는 개개인의 자발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재산과 사업에 대해 각기 주주 노릇을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이들이 유무상통하며 쓸 수 있도록 공동체의 재산을 수탁한 사람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모든 이에게 열린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의사 결정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불란이 없고 전원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 끝 까지 충성하기

일치와 충만한 사랑을 위한 해방전이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을 가지고 싸웁니다. 이에 따라 공동체의 사역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

고 전진하는 그 모든 길마다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의식이 뚜렷할 때 우리는 충성을 다 할 수 있으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목적에 대한 오류 없는 선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굳게 서 있는 사람들만이 깃발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과제가 없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대 위임명령이란 없습니다.

**전** 체인 교회에 복종하기  
 어떤 특별한 사명도 오직 그리스도께로 향해 가야하고, 전체 곧 교회와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사명 자체가 특별하다고 여긴다면 분명히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특별한 위치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일을 하더라도 전체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했으며 공동체 생활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러 저런 소명에 속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봉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려면 먼저 그러한 봉사가 전체 교회에 비교할 때 얼마나 보잘 것 없으며 얼마나 미미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한 부르심 - 가령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 과 그리스도의 교회 자체를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공동체 생활은 곧 공동체에서 훈련하고 배우는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끊임 없이 닦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신비라고 할 때에는 이와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공동체로 파고 드는 것입니다. 인성 안으로 신성이 파고드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일은 필사적으로 갈구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열린 마음과 준비된 자세를 갖게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일어납니다. 열린 마음과 준비된 자세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순간 순간마다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으며 구체적인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사명이란 공동체 자체를 하나님의 교회로 착각하는 일없이 교회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 공동체는 사랑과 일치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성령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교회 내에 자신 속에 교회를 품으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교회는 장차 이루어질 인류의 하나됨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참으로 살았있는 모든 공동체에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공동체가 세워지는 기초와 기본적인 요소는 구성원의 단결만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됨뿐입니다. 참된 교회는 성령님의 일치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유기체는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는 영으로 말미암아 의식의 일치를 이루고 하나의 통일체가 됩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인류가 하나되어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그 날은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실 인도자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 장차 도래할 위대한 사랑과 일치를 지금 미리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믿는 것은 교회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 공동체는 희생을 뜻합니다

**공**동체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직면해야 하는 몇 가지 중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또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또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를 것인가? 소수만이 우리와 같은 특별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 비록 적은 수이지만 싸움 경험이 많고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자들 - 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자신들의 사명에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이들은 일치를 위해 생명까지도 언제든지 희생하려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집과 부모를 떠나고 이 전에 하던 일까지도 정리를 합니다. 부인과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위해서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길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소명 때문에 모든 것을 끊고 희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유무상통하며 함께 일하는 공동체, 그리고 평화와 사랑의 삶에 대한 우리의 증거는 전생애와 모든 생계 수단을 전폭적으로 투신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됩니다.

## 공동체 — 믿음의 모험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 베를린에서 우리의 작은 모임이 모험을 시작하기로 감히 결단하였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더불어 일하고 산지 이제 5년(2000년이 80주년이다)이 지났고,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체 삶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수도 아니었고, 삶의 배경이나 계층도 각기 달랐지만, 우리는 모든 이들을 섬기는 한 모임으로 자리 매겨지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여러가지 일에 있어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해서 쓸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일마다 효율을 올려야겠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회원이나 일을 돕는 사람이거나 손님이든지—자신의 특별한 직임이나 사명에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미래의 공동체에 적합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계속해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늘 새로운 모험입니다. 하지만 추진하고 이끄는 힘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

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재촉받고 이끌려 왔습니다. 기진맥진하고 무익하게 될 위험성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그 믿음을 근거로 서로 도와 가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

에버하르트 아놀드의

공동체로 사는 이유에 관한

두 논평

토마스 머튼은 1968년 9월 알라스카 이글강에 있는 보혈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사랑 위에 공동체 건설하기'와 '공동체와 정치와 묵상'이라는 두 가지 논평을 써 주었다. 원래 이 두 논평 속에 나오는 아놀드의 인용문들은 1967년 판 '공동체로 사는 이유'였는데 그 뒤 1995년에 개정판이 나오면서 대체되었다.

# 하나님의 사랑 위에

## 공동체 건설하기

에버하르트 아놀드가 '공동체로 사는 이유'를 쓴 1920년대는 극심한 긴장이 감도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릇된 공동체가 만연하던 시대적 분위기에 맞서는 분명하고도 복음적인 공동체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처럼 공동체에 대해 신비스러운 환상을 갖는 분위기에 반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진정한 공동체 개념을 지향하는 경향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제가 보기에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소명과 삶에 대해 생각해 보기에 앞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대답이 필연적으로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모범적인 대답은 늘 이랬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죄인을 위해 죽으러 오셨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갈 필요 없고, 처신만 잘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조악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행위가 곧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르는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사망을 이기기 위해 자신을 값없이 완전히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망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죽음 간의 싸움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각 사람 안에서 일어납니다.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승리, 곧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이기신 사랑의 승리는 공동체라는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이 땅에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공동체를 이루고자 일하는 곳에는 이런 싸움이 반드시 일어나며, 그곳에서 사망을 이기신 승리를 명백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잠시 살펴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인용할 수 있는 좋은 글들이 많겠지만

여기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 바울은 고린도전서 1:26-31의 유명한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위해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한계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가령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때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세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며 가문이 훌륭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오래된 사본에는 '자신의 부르심을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을 이기는 초인적인 사역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나누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다름아닌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  
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  
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  
라"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것을 위해 죽으  
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세우라고 예수님이 세  
우신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  
리처럼 연약하고 지극히 평범한 자들 말입니다.  
갯세마네 수도원(켄터키에 있는 트라피스트 수  
도원인 갯세마네의 성모 수도회를 말하는데 머튼  
은 1941년 입회하여 1968년 임종 때까지 -여행  
할 때를 제외하고- 줄곧 이곳에서 수도자로 있었  
다.)을 찾아 오는 사람들 중에는 탁월한 지성을 소  
유한 이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 중에는 소명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대개 소명 의식  
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보편적인 인  
생문제와 씨름하며 몸부림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것이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바이며, 그  
리고 대부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자신을 보아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공동체가 의미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에버하르트 아놀드가 한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적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는 오늘날 하나의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적인 관점이나 개인적인 성취를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또 개인적인 성취를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이런 열광에는 위험성도 따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티칸 제2공의회(여기에서 머튼은 가톨릭 교회의 영적 쇄신을 도모하는 바티칸 제2공의회(1962-65)를 말하고 있다. 본 개혁은 예전의 혁신과 에큐메니즘의 지원, 반유태주의의 단죄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혁을 추진한다.) 시대를 개막하면서 5, 6년 전부터 에큐메니칼 진영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신교도 중 자기교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이들과 가톨릭 내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각기 자기 교파에 불만이 있었던 침례교도와 가톨릭교도, 장로교도, 성공회 교인들이 모여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추세에 있

습니다. 기존의 공동체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게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다른 여러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 새 공동체에 공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참신한 시각과 전혀 새로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만 만나도 그 생각에 고무되어 기존의 공동체보다도 이들과 더 깊이 관련을 맺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공동체가 참된 생명력을 잃고 다소 관념적이고 딱딱한 조직에 그쳤던 구시대적 분위기가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규정과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업무분담이라든지 인력관리도 안정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또 서로 간에 애정이나 친절함도 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제도 하에서는 사실 진정한 공동체성이 전혀 없이도 얼마든지 그것을 감춘 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가 생겨났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기계처럼 짜여지게 되면서 참다운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인격적인 사랑이 없이도 굴러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

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10년 전, 사람들은 불현듯 제도적인 공동체가 생명력을 잃고 마비되어 간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정체되고 심지어는 다소 거짓된 것도 보이고, 자칫하면 별의별 괴상한 것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를 연결해주는 것은 깊은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라 감상적인 애착이었습니다. 삶은 아주 폐쇄적이고 진정한 사랑보다는 감정적인 애착관계가 되기 쉬운 구태의연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개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모든 사람들이 더욱 정상적인 접촉을 회복하게 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면서 아주 강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정말 올바른 공동체다. 이것이 진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공동체가 기존의 제도화된 공동체보다 더 생동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으로 예수님이 세우려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에버하르트 아놀드가 말한 것처럼, 공동체에는 개인의 성취와 사람간의 사귄 그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아놀드가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자연적인 공동체는 인간 안에 있는 생명과 사망의 싸움을 도외시하

는 경향이 있는데, 다들 이런 공동체에 대해 낙관적으로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놀드가 애써 강조하려는 바는 공동체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는 사교성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한번도 말다툼을 해 본 적이 없는 두 명의 나이든 수도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라스카의 토마스 머튼' 86쪽에서)

사막에서 은둔 수도자로 오랫동안 함께 생활을 해오던 두 명의 교부는 한번도 싸움이란 것을 해 본 적이 없었다. 한 수도자가 말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한번 싸워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자 다른 수도자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요, 본래 싸움은 뭔가를 소유하려는 데서 시작하지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도록 혼자 독차지하는 거 말입니다. 자, 주위에 뭔가 가지고 싸울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 수도자는 벽돌 한 장을 찾아서는 말했다. "자, 이 벽돌을 우리 사이에 놓겠습니다. 그

리고 제가 '이건 내 벽돌이야'라고 말할 테니, 형제님도 곧바로 '아니야 그건 내 거야'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벽돌을 짚어서 두 사람 사이에 내려 놓았다. 그리고 말하였다. "이건 내 벽돌입니다." 그러자 다른 수도자가 말하였다. "그래요? 형제님 벽돌이면 가지세요."

이것은 다소 과장되고 별나긴 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 그 이야기에 담기 신학적 주제 - 본래 싸움은 소유욕에서 비롯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도 물건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도 이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 초연해지고 청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사람보다 가치를 더 두게 될 수 있는 재산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다른 분야에까지 이런 태도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이든지 물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해진 곳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다 이 소유욕입니다!

초대 교회 교부였던 성 막시무스는 이 점을 흥미롭게 전개했는데, 저도 어느 글에선가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기본 신학로서 높이 평가한 적이 있습

니다. 막시무스는 전쟁의 근원이 인간의 가치보다 재물을 더 귀중히 여기고 인간 존재보다 돈을 중시하는 있다는 데까지 주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생각해 보더라도 -다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곧바로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한편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수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개 가장 큰 관심은 물질적인 이해와 투자 문제입니다. 겉으로 표방되는 것은 자유수호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보자면,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그로 인해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전쟁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이걸 보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한 가지 막중한 책임은 -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함께 살기로 서약한 기존의 공동체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무라는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결혼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의무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 자기 공동체 안의 이웃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해서 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하고 공동체는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찾아오는 이유는 여럿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지, 그저 우리 개인개인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만약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도움을 입었다면, 그것은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한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 보아도, 우리에게는 공동체를 건설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진정한 공동체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일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서신 가운데

신비스러운 몸에 관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본 주제와 관련해서 묵상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공동체와 묵상과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육체에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할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국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떨어졌던 여러분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사이에 평화가 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으며 둘 사이를 갈라 놓았던 장벽을 허물어뜨리시고 율법의 규례와 조항으로 생겨난 적대감을 그분 자신의 몸에서 없애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평화를 회복하심으로써 한 몸 안에서 둘을 연합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으로 적대감을 말살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셨는데 멀리 있었던 여러분에게 평화요, 가깝게 있던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갖게 됩

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요 낯선 방문객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든 성도들과 같이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건물의 중요한 모퉁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모든 구조마다 그분 위에서 정렬되어 모두가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역시 경력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에베소서 2:11-22).

바울은 헬라인과 유대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분리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 바울의 말씀 중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속에 담긴 뜻이 많지만, 바울이 언제나 강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율법은 분리를 낳았지만 새 언약은 그 율법이 빚어낸 분열을 극복하였으며, 더 이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구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건설은 당신이 유대인인지 회당을 다니는지 하는 인종적인 배경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에게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국적이나 사회계층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걸려 넘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정치가가 실제로는 인종차별주의를

옹호하면서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떠들고 다닌다면, 인종차별주의가 기독교와 동일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이고,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민족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적인 입장을 기독교와 동등하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들이 갑자기 기독교와 동일시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날 신앙문제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분열로 말미암아 생겨난 적대감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 상에서 깨뜨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분리를 부수는 것, 이것이 또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분리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인종간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차이가 없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너무 간단히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일종의 미국 사회의 통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저 타고난 좋은 성향을 따르기만 하고, 다른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절로 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에버하르트 아놀드도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공동체를 건설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공동체와 반대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이면서 동시에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사회적인 존재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반 사회적입니다. 게다가 약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뢰와 불신이 서로 싸움을 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뢰하면서도 또 어떤 사람은 불의신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매우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실제로는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정말 개방적이고 사람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그렇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보통은 이런 사실을 직면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부정하고 억누르려고 하기

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화가 치미는 일이 있을 때 온갖 노력을 다해 밖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화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정말 실재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의가능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이유는 불안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분노를 느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곧바로 그 뒤에 벌어질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낸다면 앞으로 몇 달간 개와 고양이처럼 싸우게 될 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감정을 억누르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기만하지 말고, 전혀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지금 감정이 이래. 내 마음 속에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 이런 감정이 드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라면 바뀔 수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형제 자매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각자가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

됩니다. 요점은 공동체에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평범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충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런 문제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일어나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도 늘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습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이 문제에 대해 에버하르트 아놀드가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모든 영감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공동체 사람은 하나님 위에 세워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한 갈등과 위기를 지나 최후의 승리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위험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곧바로 생존의 투쟁과 힘겨운 삶의 현실, 그리고 인간 본성 때문에 생기는 온갖 갈등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록 끝없는 투쟁- 생명과 죽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끼어 있는 인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생명과 사랑의 힘,  
그리고 진리의 승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영감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에버하  
르트 아놀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나  
체계적인 사상이나 빈틈없는 논리도 아니며, 어떤  
종교 의식이나 조직체도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  
님 그분 자신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뜻입니다. 이 믿  
음이 우리로 이 힘겨운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힘입  
니다. 또, 이 신앙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도  
저히 사람 간에 신뢰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  
을 때조차도 다시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간끼리 신뢰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신뢰는 깨지기도 하고 또 회  
복될 수 있다는 자각,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놀드는 제가 보기에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되는 말을 꺼냅니다. ‘분명한 것은, 만약 하나님이 도와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 본성만 가지고는 도저히 공동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너무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장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놀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변덕, 소유욕,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편하고자 하는 욕망, 야망, 조급한 성미, 지배욕구 등, 이 모두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있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이 있기에 이런 세력들이 결정적이라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만일 이런 죄성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혼 생활의 문제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오. 자기 아내가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어떤 남

편이 알았다고 합시다. 이런 일은 삶에 있어서 신뢰를 깨뜨리는 비극적인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 넣습니다. 그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이걸로 끝장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그의 해결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정반대로 하십니다.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얼마든지 용서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실현하고, 공동체 삶을 실제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능력자에 대한 신앙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됩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모든 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의 선함(사실 인간에게는 선함이 있습니다)과 법의 힘만을 의지해 보려고 애써 봅니다. 하지만 악의 실재를 당면하였을 때에는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아놀드의 말에는 너무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단 한 가지 힘은 선하신 분의 근원적 신비를 믿는 믿음,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우

리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위에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며, 이 사실은 우리 신앙 생활에서 실제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때때로 자연적인 공동체가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다 보면 전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같이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사람들이 어느날 함께 살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밝혀지는 기회가 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밝혀지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로 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도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천성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으신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문제인 것입니다.

공동체는 연단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가 옳으니 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이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겠지만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기반 위에서, 그리고 믿음이라는 맥락 속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오직 옳은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서로 하나되느냐에 비례해서 주어집니다. 비록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공동체와 정치와 목상

**공**동체에 대해 좀더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매우 강력하고 활발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에 가담한 많은 사람들은- 이들은 소수 그룹이지만 제가 알기에 아주 영향력이 있는 이들로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날 현존하는 진정한 공동체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은 혁명 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혁명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곧 문제가 생길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중산층 출신으로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혁명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정치적인 일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당장 공동체를 찾고 싶은 유혹이 들게 마련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를 회피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치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꼭 다른 사람들의 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해당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마틴 루터 킹의 친구였던 훌륭한 퀘이커 교도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남부에서 있었던 시민 권리 운동에 전혀 사심없이 아주 헌신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 자기 남편과 함께 워싱턴 시위에도 참가하였습니다. 그 부부는 지극히 고상한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였지만 그들이 연대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전혀 고상한 동기 없이 일하는 정치 운동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들 부부는 이들에 의해 움짱달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 결국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부는 결코 법을 어길 마음이 없었을 뿐 아니라, 또 그렇게 되길 바라지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법을 어기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 운동가들은 이들을 이용해 ‘아무개가 우리 편에서 싸우다 체포되었다’고 소문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우리가 이런 유의 사람들과 일을 시작할 때 염두에 둘 것은 이들은 기독교적인 의미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속셈을 따로 가지고 있는 일단의 배후 조종

가들로서 정치적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지요... 우리는 사건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수파 쪽에 서도 안 되고 또 급진파 쪽에 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단체의 근본 방침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없는 곳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정치적인 운동에는 선한 의도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에 대한 열정도 있겠지요. 하지만 언제나 우선권을 쥐는 것은 실제로 권력입니다. 권력 싸움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자비한 수단 뿐입니다. 아직까지 대다수 정치 운동가들은 노골적으로 폭력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을 어떤 특정 방향으로 강제로 몰기 위해서 여러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때문에 괜찮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치가라면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것을 사용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에버하르트 아놀드가 1920년대 독일에서 이 글을 쓸 당시만 해도 아놀드는 국수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국수주의자들은 나중에 나찌가 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잔인한 형태의 공동체로 그저 인종차별주의를 대표할 뿐입니다. 이것은 조잡한 감정주의로, 모든 사람을 정렬시켜 놓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식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집단적이고 광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미국 땅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이 나라 전체가 그것을 지지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자기 재산을 보호하려 할 것이고, 그 반대편의 사람들은 소위 혁명적인 활동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 어찌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놀드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뒤 내린 결론적인 입장에 저 또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양쪽 입장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며, 우리 또한 양쪽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게 더 취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곳이 창조적이며 건설적인 입장입니다. 또 이것이 간디가 취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 태도를 간디가 취했다는 이유로 이상적이라

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비폭력에 관한 간디의 글을 정리하여 소책자를 내면서 머리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간디의 사상이 잊혀지고 있는 지금,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비폭력이 이제는 모두 퇴색되어 버리고 준폭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디가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다면, 결코 어떤 참된 비폭력에도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비폭력이 하나님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고 진짜가 아닙니다. 간디는 이것을 이야기했고, 마틴 루터 킹은 이것을 취해서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여기서 간디의 영적인 접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욕주의를 기초로 합니다. 간디는 자주 단식을 했고 영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많은 이들이 가담하고 있는 모든 권력 운동 속에서 공동체를 추구하는 유혹을 감지해야 하고 또한 기독교 공동체 곧 하나님에 의해 건설된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놀드는, 혁명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이상주의 사회운동 또는 개혁운동 속에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나타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공동체를 하기에는 너무 무력하다고 말

했던 것입니다. 혁명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이상주의 사회운동 또는 개혁운동이라고 할 때 아놀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아마도 채식주의자나 히피같은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히피들은 공동체를 갈망하지만 공동체를 이루기에는 무력하기 때문에 이 집단 저 집단 사이를 떠돌아 다니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리스도 수도원에 있던 한 히피 청년이 생각납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히피들과는 달랐죠. 훨씬 깊은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히피 청년을 공항에서 만났는데, 아주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을 자동차를 운전할 때 눈을 가리지 않도록 인디안처럼 붉은 가죽끈으로 묶고 있었습니다. 아주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그는 낡은 구형 폭스바겐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뒤에다 요리용 난로와 잠잘 수 있는 침대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석회 반죽기를 끌고 다니는 것을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죠?” ” 전부터 수도사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일년 간 수도사들을 위해서 벽돌을 만들어 손님 숙소를 만드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그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던 거죠. 그는 분명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수도원에 살면서 수

도자들을 도와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곳이 필요하면 자기 폭스바겐 자동차를 계곡 나무 아래 세워 두고 벽돌을 만듭니다. 이 친구는 내가 본 중에 가장 맘에 드는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도원 윗동네인 알부켈케까지 자동차를 몰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명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명상을 하세요? 명상할 때 무엇을 하시죠? 힌두교도들은 무엇을 하고, 불교도들은 무엇을 하지요? 그는 기도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해 주더군요. 군대에서는 어땠는지 그리고 결국 군대란 것이 전혀 불합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지금은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싶어 폭스바겐을 끌고 이 계곡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에도 몇 명의 멋진 히피들이 왔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수도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모두들 음식을 가지고 올라 갔습니다. 그들은 수도원 차고에서 몇 차례나 파티를 열었는데, 모든 기타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것을 연주하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말합니다. ‘혁명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이상주의 사회 운동 또는 개혁 운동 등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거듭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가지만이 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불러 일으키고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가지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참된 행동의 모범을 말합니다.’ 이 말과 행동의 일치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행동이시며, 이 하나님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타락한 세상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는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로, 바로 사랑의 사귄 안에서 행하는 건설적인 행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참된 기초라고 아놀드는 역설합니다. 이어서 아놀드는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 감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공동체가 정말 의미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감상적인 사랑, 행함이 없는 사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실제적인 일에 대한 열심이라도 그것이 성령님에게서 비롯하는 사귄, 곧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의 진심어린 사귄 가운데 날마다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행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담긴 행함과 마

찬가지로 행함이 있는 사랑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놀드의 공동체 삶에 대한 글은 정말 훌륭합니다. 현실적이면서도 기초가 튼튼합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랑 안에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것은 공의회가 가우디움 에트 스페스 (Gaudium et Spes: 기쁨과 소망)이라는 기치아래 강력하게 내세웠던 오늘날 교회의 대사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기 위해 함께 협력함으로써 새 세계를 건설하자는 떼아르 드 샤르댕[뵘에르 떼아르 드 샤르댕 (Pierre Teilhard de Chardin), 1881-1955, 프랑스 과학자, 천주교 신학자]의 사상과도 통합니다. 아놀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초대 교회를 인정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내적인 필요만큼이나 외적인 필요를 채워 주는 데도 헌신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병든 몸을 치유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고통받는 영혼을 구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중에 지극히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님의 메시지는 장차 도래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을 뜻합니다. 이것은 마침내 이 땅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러질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체험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이 땅을 온전히 정복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심오한 기독교 사상이며,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명상(contemplation)이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명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이나 제한적인 실현이 아니라, 온 존재의 실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현이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셨음을 말합니다. 이 실현은 이전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당신은 이 실현을 실제로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지만 또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어렴풋이 보고, 믿기도 하고, 당신의 삶도 그것에 기초하지만, 때로는 완전히 모순되거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되돌아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 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엡 1:15-18)*

이 모든 것이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당신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존재 하긴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입니다. 당신이 어느 정도까지는 소망을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함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 나게 하셨습니다.  
(엡 1:19-21)*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넘치는 능력과 권위와 다스림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너무 자주 그것들을 그저 쉽게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참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소외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가 참으로 온전히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어떤 능력이나 권세나 주관하는 자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엡 1:22-23)*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씹고 또 씹으면서 생애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이 방법 외에 달리 우리가 될

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저 몇 번 읽고 난 다음 주석을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씹고 또 씹으면 아마도 50년쯤 지나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